

연설 4: April Gudenrath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제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 보았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강인하고 뛰어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만 약하기도 하고, 부족한 융통성을 보이고, 그리고 산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 주특기를 선보입니다; 바로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저의 오래된 꿈 이였고, 이 꿈을 Colorado Springs 에서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의 기획팀에 소속되 있었고 학교의 마스크트부터 교재까지 고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릇파릇한 고등학생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저는 무척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슬프게도, 현실은 달랐습니다. Newsweek 잡지에서는 저희 학교에 대해 무척 다른 이야기를 선사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기 한국에서와 여러 곳에서 낯설지 않은 이야기 입니다.

학생들의 수차례의 자살사건 끝에 제 친구가 저에게 Victor Frank 가 쓴 Man's Search for Meaning (사람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라는 책을 저에게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교사라고 해서 이 책을 전에 읽어 보지 않았다고 놀라지 마세요! 영어교사들도 Netflix 보는 거 좋아합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변화였습니다. 제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트여주며 아무 두려움 없이 깊은 숨을 드려 마실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대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홀로코스트를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 입니다. 그는 유대인 캠프에서 지내며 캠프 신인들 중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Fredrick Nietzsche 이 책 속 말한 문장이 답을 알려줍니다.

“ ‘왜’ 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진 자는 어떤 시련이든 버틸 수 있다.”

저는 말을 되 새겼습니다.

“ ‘왜’ 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진 자는 어떤 시련이든 버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묻던 질문의 명확한 답 이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제 학교는 11건의 학생 자살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몇일 사이에 여러 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직원의 긴급회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 마다 닥쳐오는 아픔을 표현하기 힘드네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묻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학생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제 아들과 그 아이의 친구들도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장례식을 치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들도 역시 “왜?” 라고 물었습니다.

문제는 질문에 답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헌법 때문에 이 자살 사건들에 대해 상의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교사들은 제도와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대본을 읽으며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상담실의 도움을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 2015년 어느 날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왜 예기 하지 않죠? 왜 저희의 잃음, 아픔에 대해 예기하지 못 하나요? 왜 똑바로 예기를 하지 않아요- 그 여자아이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고요. 인생이 너무 싫어서, 살아 가야할 이유가 없어서 자살을 한 거라고요.” 그 아이는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수업을 중단하고 제 문신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 ‘왜’ 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진 자는 어떤 시련이든 버틸 수 있다.” 이 문장에 대해 저희는 상의 하였습니다. ‘왜’ 를 답해줄 목적이 없으면 인생의 여러 시련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고통을 해쳐 나갈 이유가 없으면 살아 가야할 필요가 있나요? 이 생에서 답이 없는 질문도 많지만, 이러한 답들은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종이 위에 학생들에게 ‘왜?’ 를 적으라고 하고 모든 필기도구를 끌어 모아 단어를 마음껏 장식하라고 했습니다. 색칠하는 아이도 있었고, 단어 주위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도 있었고, 흰 종이위 검은 글씨로 간단하게 나뉜 아이도 있었습니다. 다음, 자신에게 여러 질문을 물어보며 답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교육이 어려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니?
왜 학교를 다니니?
왜 노력하니?
왜 대학을 가고 싶니?
왜 세상을 변화 시키고 싶니?

“다른 사람 때문에” 라는 답변 종류들을 예외하고 말이죠. 이 어려운 질문들을 답하려고 다 같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말이죠.

고통에 가까운 과제였지만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다음 수업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업에는 Ben Sanders 의 “남극 여행- 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105 일” TED Talk 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멋진 연설은 자신이 모험이란 경험을 통해 배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모험은 예정에서 벗어나 눈 폭풍과 엄청난 굶주림이란 시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부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당연히 비행기를 부른 것을 후회하진 않죠,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예기를 하며 숨쉬고 서있지 않았겠죠.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일정의

한 부분이 아니었고, 제 자존심도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험은 저의 꿈 이었고, 완벽에 가까웠어요.”

그래요. 그의 꿈은 외부의 도움없이 모험을 마무리하는 것 이었어요. 그리고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도움의 요청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과 부족함을 보이기 싫어서 였겠죠.

이 연설을 보고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동상 때문에 흉터가 남는다고요?!”

하지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잖아요- 그의 꿈이요. 망신 당한 걸요.”

이 답을 바란 저는 남학생이 그렇게 답을 해줘 고마웠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경제적 중상위권의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 이었고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 해야한다는 압박감과 더해 좋은 대학 아니면 사관학교 입학 희망생들이었습니다. 모두 능력있는, 영리한 청소년들이고 그들의 미래가 아주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의 문제는 자신에게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모른다는 것 이었습니다. 자신의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알아야지만 모든 것을 해쳐 나갈 수 있겠죠.

학생들과 함께 학교, 부모님,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이 묻어나며 서로의 진심을 말하고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서히 자신의 실망과 두려움에 대해 고백하였죠. 아이들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22 명의 사람들이 제 앞에 앉아있는 느낌이 드디어 물씬 났습니다. 그 아이들도 모두 그냥 연약한 사람이란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종이를 거두기 전에 하나를 더 적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인생에서 감동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목표의 달성을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면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처가 아니라 두가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릴까? 자신의 한계에 다달았을 때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저는 학생들에게 그 종이를 잘 간직하고 있겠다고 하고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으로써 책임져야 할 임무를 말해주었습니다.

1. 위기가 닥쳐 왔을 때 종이를 다시 훑어보고 적혀있는 것을 수행하라.
2. 우리는 너무나 지나친 한도에 다달을 수 있다. 같은 인간으로써, 이 상황을 목격할 당시에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 사람이 종이에 적혀는 2가지 대처 방법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무관심은 사전에도 올리면 안되는 것으로 저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몇 걸음이면 도착할 맥도날드인데 굶주린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학기가 흘러가며 종이를 꺼내려고 반을 들락날락하는 학생 몇몇을 보았습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종이를 읽게 만들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졸업식에 펼쳐진 그 해의 5월, 한 학부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무척 좋아했어요. 선생님의 교실에 들어서면 현실적인 고민들도 하고 자신에 왜 대학을 가고 싶은지 진심으로 고민했다고 하네요. 올해 전에 아들이 미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에게도 힘들고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닥의 아드님이 아주 멋진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학부모는 제 말을 끊고 살포시 손을 제 팔에 얹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대처할 방법을 제공해주신 분은 선생님이셨고, 이것이 제일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처참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찾으며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또한, 이 인생은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받아가며 이어가야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는 그냥 사람이란 존재이니깐요.

감사합니다.